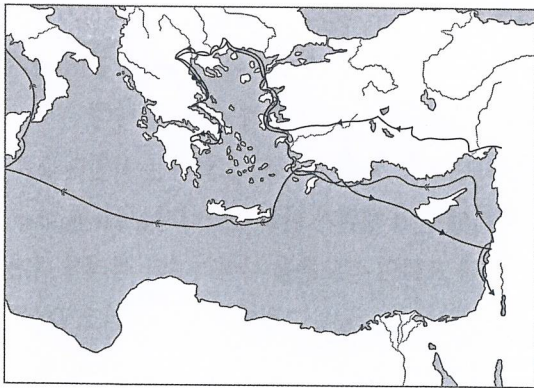


## 제 54 강

# 바울의 회심과 세계선교 (사도행전 연구 Ⅲ)

■ 성경본문 사도행전 9:1-20, 11:19-21:14 ■

## 프렐류드(Prelude)



바울의 전도 여행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기적과 마주합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바울로 바뀌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현장을 지켜본 정통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 사울은 소아

시아(지금의 터키) 다소의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높은 학문에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교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처럼 번져가는 예수 운동은 사울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예수의 불길을 끄는 것이 야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유대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서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어느 지점에 도착한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빛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생명'의 표현

입니다. 죽은 자나 죽은 신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여기서 사울은  
거꾸러지고 새로운 존재 바울이 되고 있었습니다

## 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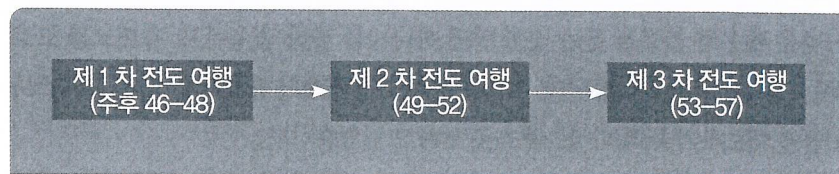
1. 바울의 회심과 소명(사도행전 9:1-22)
2. 바울의 세계 선교(사도행전 13:1-21:16)

## II. 시대적 배경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세  
계로 뻗어가는 새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들은 불길 같이 퍼져  
가는 예수 운동에 충격을 받고 즉시 압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  
방하고, 스테반의 죽음 같은 극단적인 살인 행위가 판을 쳤습니다(행 6:8-15, 7:54-  
60). 특히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시리아 다마  
스쿠스,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행 8:1). 그러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세계에 복음  
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  
니다(행 8:4). 그 한 지점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리였습니다.

### 〈연대표〉



### III. 말씀과 해석

#### 1. 사울(바울)의 회심과 소명(사도행전 9:1-22)

다마스쿠스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행 9:1-9)은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사도 중심의 교회로부터 세계교회를 여는 길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정점이며 전환점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리스도교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였으며, 그리스도교 복음을 ‘아람어’(Aramic)에서 헬라어(Hellenistic)로 해석하고 변증하는 세계문화혁명의 ‘모멘텀’(momentum)이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Damascus)은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셀레우코스 제국 때부터 헬라화되면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가 공존하는 ‘메트로’(metro)로 변모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대제사장의 체포령을 담은 공문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여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한 어느 지점, 갑자기 하늘의 빛이 비추자 사울은 쓰러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뚫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행 9: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생명 앞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5) 이 짧은 대화는 생명과 생명의 부딪힘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에서 나누어진 대화이지만 이 만남은 사울의 전존재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뜨겁던 유대교 신앙, 박식한 율법의 지식, 흰칠한 가문, 로마 시민권 모두가 한순간에 부셔져 버렸습니다. 눈 멀, 식음 전폐는 더이상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이 쌓아 온 신앙의 열정과 지식 모두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행 9:15).

비존재가 된 사울은 다마스쿠스 아나니아의 돌봄과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다시 봄, 세례 받음, 회당에서 예수 증거와 간증, 다마스쿠스 탈출, 예루살렘 사



도들과의 만남, 다소로 잠시 피신한(행 9:10-31)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 2. 바울의 세계선교(사도행전 13:1-21:16)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화의 증언이며, 주역은 수제자-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무대는 로마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주역은 바울(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세계선교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하는 세계화의 돌풍이 이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 (1) 제 1 차 전도 여행(행 13:1-14:28) - 주후 46-48년

시리아 안디옥은 세계가 만나는 로마의 거점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찍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안디옥 공동체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을 크게 입었으며, 바울의 세계선교를 뒷받침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전도 제 1 차 여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디옥에서 키프로스섬으로(행 13:4-12)

- 로마 총독의 회개

b. 바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행 13:13-52)

-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큰 감동

- 유대인들의 저항, 축출당함

c. 이고니온으로(행 14:1-7)

- 갈라디아 이고이온에서 전도

- 헬라 사람의 호응

-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

d. 루스드라에서 선교(행 14:8-18)

- 앓은뱅이를 일으킴

- 목격자들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하고 제사하려 함

-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변증

-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 설명하였습니다.

e.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리고 안디옥으로(행 14:19-28)

- 유대인들의 살인음모

- 루스드라 탈출

- 더베에서 전도-많은 사람의 회심

-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옴

## (2) 제 2차 전도 여행(행 16:1-18:22) - 주후 59-62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를 데리고 제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역을 이번에는 육로로 순회하려고 서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행 15:41).





a. 루스드라에서 민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남(행 16:1-2)

- 바울의 일행은 두 번 여로를 변경

b. 유럽의 경계선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봄

c. 유럽의 첫 성 빌립보(행 16:11-40)에서 전도

- 큰 회심

- 자주 장인 루디아와 가족 수세,

- 귀신 들린 점쟁이 소녀를 고쳐줌

- 소녀의 주인이 바울 일행 투옥

- 지진, 옥문 열림, 바울은 그대로 남음

- 간수들의 회개, 간수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품(행 16:16-40).

d.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행 17:1-15)

-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

-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회당에서 쫓겨남

- 강패들의 습격

- 베뢰아로 탈출,

- 아테네로 이동

e.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귀로(행 17:16-18:22)

- 헬라 문화, 철학, 문학, 예술의 중심 아테네에서 복음전파

- 아레오바고에서 다시 설교





- b.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행 20:1-21:14)
  -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예루살렘행
  - 바울을 해하려는 계책 정보 입수
  - 다시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드로아로
  - 드로아에서 강론-유두고 청년의 낙상과 죽음-바울이 다시 살림
  - 오순절 전 예루살렘에 가는 길, 밀레도 정박,
  -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설교
  - 모였던 사람들의 눈물겨운 작별(행 20:17-37)
  -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유숙, 아가보의 상징적 몸짓(행 21:11) 성도들의 예루살렘행 만류
  - 바울의 결심 토로, 예루살렘행, 제 3 차 전도 여행 종료(행 21:1-14)

#### IV. 성찰과 나눔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세계 역사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는 '주전'(主前-BC)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주후'(主後-AD) 역사입니다. 여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前) 역사-낡은 역사가 가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특히 주후(AD) 역사는 예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 태동, 세계선교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역사가 세계사의 중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역사는 베드로가 주역이었습니다.

3. 그러나 세계사의 축이 된 세계선교는 바울이 주역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은 극히 짧은 '순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시간 속에 오신 영원하신 현재, 생명,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4. 먼 옛날 하란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밤이면 밤마다 꿈



과 환상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은 생명만이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5.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앞에 거꾸러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과의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신학은 이 순간을 ‘메타노니아’(회심-回心-metanoia)라고 합니다. 회심은 ‘회개’(悔改-repentance)를 넘어 전 존재의 파괴, 전 존재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6.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박해자 사울의 전 존재가 부서지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이 다마스쿠스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신 세계구원의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7. 사도행전의 2/3를 차지하는 바울의 세계선교는 바울이 이룩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삼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증인이었습니다.

8. 3차례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 보여준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안에 있었던 증언의 토막들이었습니다.